지안 대종사, 제자 12명에 강맥 전수

통도사 반야암서 전강식 봉행
백파 긍선, 설두 유형 맥 이어
비구·비구니 각 6명 전강 제자
"부처님 가르침 더욱 창달되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요산 지안 대종사가 반야암 반야보전에서 전강제자들에게 강맥을 전수하고 있다.

요산 지안 대종사의 강맥전수 전강식이 3월 20일 통도사 반야암 반야보전에서 개최됐다. 지안 대종사는 '부종수교(扶宗樹敎) 전법도생(傳法度生)'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혜명(慧明)을 잇고 수행 정진해 일방(一方)의 사표가 될 것"을 당부했다. 전강식에는 지안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전강 제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승강맥은 백파 긍선(白坡 亘璇), 설두 유형(雪竇 有炯), 설유 처명(雪乳 處明), 한영 영호(漢永 映湖), 운허 용하(耘虛 龍夏), 월운 해룡(月雲 海龍)에서 요산 지안(樂山 志安)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법회에서 설곡 정인(상주 황령사 주지), 허웅 탄대(서울 원통사 주지), 무악 신경(통도사 포교국장), 허암 인경(울산 신흥사 주지), 성담 법본(서울 약사사 총무), 석륜 성구(진주 백운사 주지), 설향 혜봉(남해 불지암), 은담 규정(의정부 여래사 주지), 천해 현산(진안 천황사 주지), 각륜 도업(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강사), 소하 돈각(조계종 교육아사리), 월조 효신 스님(조계종 포교원) 총 12명에게 전승됐다.

지안 대종사는 제자에게 전강게를 수여하며 게송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전법을 펼쳐 교화의 공덕을 세워갈 것을 강조했다. 지안 대종사는 "소납이 강맥을 전수하는 또 한 번의 인연을 만난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부덕함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기도 하다"며 "다만 이런 인연을 통해 새로운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법이 더욱 창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강식은 수행 이력을 쌓아온 스님들이 또 하나의 성숙한 자취를 남기는 자리다. 앞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교화의 공덕이 더욱 높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지안 스님은 큰 스승이시며 많은 스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대강백"이라고 상찬한 뒤 "제자스님들이 그동안 수행 정진의 결과로 전강을 받았다 여기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큰스님께서 더욱 건강하셔서 많은 제자를 길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지안 큰스님께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가르침을 주셨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또 모여 축하를 하고 있다"며 "스님께서는 마지막 전강이라 하셨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전강식이 지속적으로 열리길 기대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요산 지안 대종사는 1970년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한 후 15년간 통도사 강주를 지냈으며, 10년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문불전대학원장, 조계종교육원 부설 서울불교전문강당, 서울불학원 원장 등을 맡아 오랫동안 승가교육에 힘써왔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원 역경위원장으로서 역경불사에도 앞장섰다. 또 승가고시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고시위원장을 지내 각급 승가고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지안 대종사는 '비유컨대 어둠 속의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로운 이라도 알지 못한다'는 〈화엄경〉 게송을 마음에 담고 승가교육 발전에 앞장서 왔다. 〈금강경 이야기〉 〈금강경 바로 읽기〉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기신론강해〉 〈기신론신강〉 등 다양한 경전을 번역하고 2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범어사 "대학생 전법 꾸준히 지원" 약속

부산대 동아리 부산바라밀과
대학생전법단 지정법회 봉행



금정총림 범어사의 대학생전법당 지정법회.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지도법사 정수 스님을 비롯해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합장하고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대학생 전법의 첫 시작을 알렸다.

범어사는 3월 16일 경내 보제루에서 '리부팅 리붓다(Rebooting Rebuddha) 금정총림 범어사 대학생 전법단 지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범어사의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선포였다. 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과 지도법사 정수 스님(호법국장)을 비롯해 김건우 부산대 불교바라밀 회장과 불교바라밀 학생들, 진주 경상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오늘 불교와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온 중요한 만남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귀한 인연으로 삶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며 "범어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지원을 약속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통해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법사 정수 스님은 "도량에 핀 매화를 만난 것처럼 여러 학생들과의 인연이 행복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법을 알아가면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의 행복을 마주하시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과의 더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불교바라밀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들은 건전한 청년 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이 땅에 불국토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부산대 불교동아리 부산바라밀은 1985년 창립해 현재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총 1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대 중앙동아리에 등록된 공식 동아리이다. 범어사는 불교바라밀의 지도법사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전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안양암으로 찾아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염주와 다포를 선물했다. 학생들은 감사 인사로 삼배를 올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행복선명상 김해서 '명상지도사 양성'

김해 바라밀선원 2급 과정
3월 15일 개강…15명 동참

〈대념처경〉의 가르침 '알아차림'을 근본으로 불교명상을 지도하는 행복선명상이 김해지부로 확산해 본격적인 명상지도사 양성에 돌입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 스님) 부설 CM명상상담센터(센터장 홍순하)는 3월 15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제7기 명상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시작했다. 특히 김해지부인 김해 바라밀선원에서도 3월 19일 시작을 알리며 가야국제명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다. 경남지역에 김해지부를 연 이후 정식으로 시작된 명상지도자 양성 과정이다. 이번 7기 명상지도사 과정에는 총 52명이 신청했으며 미타선원에서는 37명이, 김해바라밀선원에는 15명이 수업한다.

CM명상상담센터는 2019년 9월 행복선명상지도사 자격과정을 설립했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교명상을 알려왔다. 현재 2급은 178명, 1급은 79명 총 257명의 명상지도사를 배출했다.

CM명상상담센터는 "부산에서도 사찰 두 곳에서 행복선명상 운영을 준비 중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명상을 모두 함께 알고 행복의 길로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임명

2 · 3대 회장 이어 6대 회장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제6대 회장으로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임명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3월 15일 범어사 선문화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제 5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회는 108명 가운데 총 71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위임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과거 회장직을 맡았지만 이번에 다시 소임을 맡기신 것은 당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포교에 앞장서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우리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344명 입학

도심 속 교육도량 자리 잡아



도심 속 포교도량인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스님)이 3월 17일 여래선원 대법당에서 '2024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는 불교대학 전문반 주간반 71명과 야간반 74명, 경전반 주간반 81명과 야간반 98명, 온라인반 22명으로 총 344명이 입학했다. 행사에는 학장 효산 스님과 최용규 총동문회장, 추현철 동의대 교수 등 내빈과 입학생들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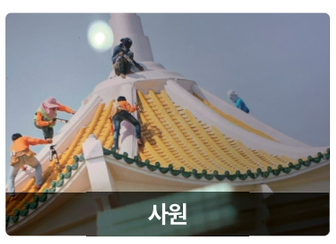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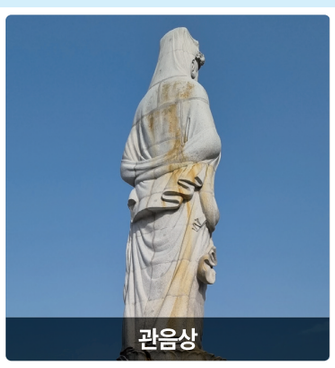
학장 효산 스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재일에 입학한 불교대학 5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인 심출가를 하는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 잘 배워가면서 감사한 마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문화재·사찰

사원

관음상